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듣기와 말하기 논문 고찰: 현대영어교육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명관*, 박옥희†
안양대학교, 배재대학교

Lee, Myong-kwan & Park, Ok-hee. (2010). A review of studies on listening and speaking for communicative competences: In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Education*. *Modern English Education*, 11(2), 40-59.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studies on listening and speaking for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journal of *Modern English Education* over the past 10 years. There are 24 (9.96%) articles for listening and speaking of total 241 articles. These articles were classified into 4 categories; research area, subjects, methodologies, and instrument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in terms of research area, strategies for listening and speaking were the most examined. As for the subjects, college students including graduates and adults were ranked the highest. In research methodologies, quantitative methods were preferred to any other ones. Finally, instruments for research were varied considerably as in transcripts, interviews, surveys, written test, dictation, listening and speaking test, observations. These results showed the trend of studies on listening and speaking, and also clues on listening and speaking for communicative competence for the future.

[communicative competence/ listening/speaking/ article analysis /의사소통능력/
듣기/말하기/논문분석]

I. 서론

최근 우리나라 영어교육은 국제화와 세계화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의사소통 능력이 강조되고 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현 기능인 말하기와 이해 기능인 듣기의 상호작용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필요성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듣기 평가 문항 비율

*제1저자.

† 교신 저자.

증가¹와 영어 공인 능력시험에 말하기 능력 평가의 도입 등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말하기교육은 초창기 영어교육에서부터 강조되어 온 반면(Brown, 2001; Field, 2008; Nation & Newton, 2008), 듣기교육은 1970년대 전신반응교수법(Total Physical Response)과 자연식접근법(The Natural Approach)과 함께 뒤늦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듣기교육의 선행연구를 보면 듣기 교수법(Field, 2008; Flowerdew & Miller, 2005; Morley, 1995; Nation, 2009; Richard, 1983), 청해전략(Berne, 2004; Murphy, 1987; O'Mally, Charlot, & Kupper, 1989; Peterson, 2001; Saricoban, 1999; Vandergrift, 1999; Young, 1997), 교재개발(Beglar & Murray, 1993; Holt, 1999; Jones & Kimbrough, 1997; Radley & Sharley, 1999), 그리고 영어뉴스 연구(Poon, 1992; Vann, 1996)등이 있다.

말하기교육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제 2언어 화자들이 의사소통과정 중 직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연구(Gass & Varonis, 1991), 의사소통능력 개발을 위해 원어민 화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연구(Duryee, Lanier, & Michel-Reyer, 1991; Stoller, Hodges, & Kimbrough, 1995), 학생들의 구두 언어 수행에 관련된 연구(Foster & Skehan, 1996; Skehan & Foster, 1999), 그리고 영어 말하기 어려움의 원인에 관한 연구(Chen, 2003; Jackson, 2002; Liu & Littlewood, 1997) 등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다.

본 연구는 현대영어교육(The Modern English Education Society) 학술지에 창간 후 10년 동안(2000-2009년) 게재되었던 논문 중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 주요 학술지의 하나인 *현대영어교육*에 실린 논문 분석을 통해 최근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듣기와 말하기 연구의 실태를 파악해 보고, 이를 통해 해외 주요 연구 경향과 비교해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 우리나라 듣기와 말하기 교육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여 앞으로 듣기와 말하기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전망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현대영어교육학회가 창간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발간된 논문을 분석하였다. 그 동안 *현대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241편이고, 이 중에서 듣기와 말하기 논문은 24편으로 전체 논문의 10.0%에 해당한다. 본 학술지에 영어 학습 및 교수법에 관한 논문이 124편(67.4%)인 것을 감안하면 듣기와 말하기교육 연구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4편

¹ 1994학년도 대학 수험능력시험부터 포함된 영어 듣기 문항이 1997년도 시험부터는 30%로 상향 조정되었다(차경환, 이원석, 심재황, 2005)

중 듣기 관련 논문은 7편(2.9%)이고, 말하기 관련 논문이 16편(6.7%),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모두에 관련된 논문은 1편(0.36%)이다. 차경환, 이원석, 심재황(2005)이 실시한 *영어교육* 학술지의 40년간(1965-2004) 논문 분석에서 듣기에 해당하는 논문이 4.43%였던 것과 비교하면 듣기 관련 연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었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로 먼저 *현대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총 논문 241편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어학, 영문학을 제외한 영어교육 영역을 추출하였고, 다음으로 영어교육 영역에서 듣기와 말하기 논문을 추출하였다. 이 논문들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을 만들기 위해 이전 연구와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고, 24편 각각의 논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 분류 기준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도구의 4가지 분류 기준이 정해졌다. 그런 다음 본 연구자들은 각각 듣기 논문과 말하기 논문을 맡아 분류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고, 연구의 논의 및 토의는 함께 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3. 분류 기준

본 연구에서 살펴 볼 논문들은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도구로 분류된다. 연구 주제는 듣기와 말하기 논문이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 듣기 논문에서만 다루어진 주제, 말하기 논문에서만 다루어진 주제로 나뉘어 모두 6가지로 분류되었다. 즉, 듣기와 말하기 논문에서 모두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는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듣기·말하기 능력, 학습 전략, 듣기·말하기 저해 요소,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였다. 듣기 논문에서만 다루어진 주제는 교재 분석 및 개발 이었고, 말하기 논문에서만 다루어진 주제는 발화분석이었다. 분류의 과정에서 학제간 융합의 경향을 갖는 연구, 예를 들면 의사소통 능력을 위한 발음 및 발화 등의 어학 논문은 본 연구에 포함시켰으며,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역사적 고찰도 본 연구에 포함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요인에 해당하는 듣기와 말하기 기능에 관련한 논문만으로 제한하였고, 이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은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은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그리고 제 2언어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 통합으로 분류하였다.

연구 방법은 먼저 이론적(theoretical) 연구 방법과 실증적(empirical) 연구 방법으로 나누고, 실증적 연구 방법은 다시 양적(quantitative)연구와 질적(qualitative)연구,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한 양적+질적 연구로 세분하였다. 양적 연구는 통계 방법을 사용한 논문들로 변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측정과 수량화,

수량적 자료에 대한 통계 분석 등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조사연구, 실험 연구 등을 포함한다(Johnson, 1992). 질적 연구는 다양한 경험적 자료를 사용하는 논문들로서 사례연구, 개인적 경험, 면담, 관찰, 그리고 상호작용 등을 다룬 논문들을 포함한다(Denzin & Lincoln, 1994).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양적+질적 연구, 이론적 연구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연구 도구는 위의 연구 방법이 실시한 구체적인 도구들을 조사한 것으로 듣기 시험, 전사, 녹취, 교재분석, 말하기시험, 인터뷰, 관찰, 설문지, 토익, 지필고사 등이 있다. 하나의 논문이 두 개 이상의 연구 도구를 사용한 경우 각각을 독립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류 기준은 연구논문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면서 본 연구에 맞게 본 연구자들이 정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1. 연구 주제

본 학술지에 게재된 듣기와 말하기 논문은 듣기와 말하기 논문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듣기와 말하기 능력이 4편(15.5%), 학습 전략에 관한 논문이 7편(26.5%), 듣기와 말하기의 저해 요소에 관한 논문이 5편(19.4%),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 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논문이 3편(11.5%)있고, 말하기 논문에서만 발견된 발화분석이 3편(11.5%), 그리고 듣기 논문에서만 발견된 교재 분석 및 개발에 관한 논문이 2편(7.8%) 있다. 연구 주제별 분류 결과 학습 전략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교재분석 및 개발에 관한 논문이 가장 적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24편이지만, 주제별 분류에서는 표 1에서처럼 26편이 된다. 이것은 논문의 내용이 두 가지 주제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주제 항목 모두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표 1
연구 주제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듣기·말하기 능력	학습 전략	듣기·말하기 저해 요소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 관계	발화 분석	교재 분석 및 개발	합계
N (%)	4 (15.5)	7 (26.5)	5 (19.4)	3 (11.5)	5 (19.3)	2 (7.8)	26 (100)

1)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듣기·말하기 능력

교수법이나 교수환경이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논문들 중 듣기와 관련된 논문이 1편, 말하기와 관련된 논문이 3편으로 총 4편(15.5%)이다. 듣기 논문으로 Insun Kang(2004)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듣기 능력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낮은 가장 큰 원인으로 듣기에 대한 절대적인 노출의 부족을 들었다. 구체적으로 아시아의 여러 대학의 영어 수업 시 수, 영어 노출 시간, 토익, 토플 점수의 자료 비교 등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듣기에 할애하는 시간과, 훈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것은 낮은 듣기 능력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교수법에 따른 말하기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로 Daesung Chung(2001)은 과제중심 언어교수법이 회화능력향상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연구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연구자는 교수법에 따라 학습자의 영어 사용 능력이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과제중심 언어 교수법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과제중심 언어 교수법으로 학습한 집단 내 상위그룹과 하위그룹간의 차이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과제중심 교수법을 사용한 집단이 총체적인 영어 사용 능력에서 향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교수-학습 환경 요소에 따라 말하기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로 Jiwon Paek(2002)과 장형지(2005)의 논문이 있다. Jiwon Paek(2002)의 연구는 교수-학습환경에 따른 말하기 태도를 살펴본 것으로 미국 대학에서 수학 중인 2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자와 비원어민 화자의 영어 대화 정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상황에서 영어로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조사하였다. 장형지(2005)는 영어권 국가에서의 어학연수가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이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습환경이 말하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었다.

듣기와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방법이나 교수-학습 환경과 같은 외적인 요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 및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다.

2) 학습 전략

듣기 전략에 관한 논문이 3편, 말하기 전략에 관한 논문이 4편으로 학습 전략에 관한 논문은 모두 7편(26.5%)이며, 주제별 분류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분야이다. 먼저 듣기 전략에 관한 연구로 Chinyon Kim(2004)은 내적 상호작용(intra-personal interaction)과 대인 간 상호작용(inter-personal interaction)방법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매일 영어 라디오 뉴스 방송을 듣고, 뉴스의 내용을 받아 적고, 또 거울을 보며 연습하는 철저히 자기 혼자만의 내적 상호작용방식 보다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대인 간 상호작용, 즉 쌍방향 혹은 다방향적인 상호작용이 듣기 능력향상에 훨씬 효과적임을 자신을 피실험자로 하여 오랜 기간 연구한 결과를 피력하였다.

Jae-guk Cha(2006)는 한국의 지방대학 영어과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듣기 전략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 외국 경험 정도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 결과 외국경험이 있는 학생은 외국에서 원어민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하향식(top-down) 전략을 더 선호하였고, 영어 유창도가 낮은 학생들 역시 하향식 전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체적으로 한국대학생들은 상향식(bottom-up) 전략을 선호하지 않았는데, 어휘 능력과 문장을 분석할 통사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설문 결과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하향식 전략을 제일 선호하였지만, 이상적인 전략은 상호작용(interactive processing)이라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효과적인 교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김동규(2008)는 메모하기 전략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영어듣기와 관련된 메모하기 전략사용 실태에 관해 알아보고, 이러한 전략의 사용과 듣기 능력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메모하기 전략 지도 후 학생들의 영어 듣기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연구결과, 대학생들의 메모하기 전략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높고, 긍정적이었으나 실행도는 낮았고, 영어 듣기 평가 시 메모하기 전략을 사용한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이 더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전략에 관한 말하기 관련 논문에서 Won-bo Kim(2003)은 영어강세가 영어 듣기와 말하기를 학습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문헌 연구를 통해 밝혔다. Jeongwan Lim(2004)은 한국인 남녀 학생들과 미국인 남녀 학생들이 의사소통시의 차이점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설문지와 상호작용적 담화 완성 시험이 실시되었고, 연구결과, 성별에 따라 그리고 문화에 따라 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체로 미국인들이 한국인 학생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공손한 경향이 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Miyang Cha(2007)는 15명의 한국인 해외근무자를 대상으로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의사소통 전략에 관해 조사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영어능력의 부족함을 보완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실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전략을 사용하여 도움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Duk-Young Kim(2008)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정한 상황에서 영어로 불평을 말할 때의 화용적 능숙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 대학생들이 영어로 불평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보고 원어민 화자와 비교하였다. 연구를 위해 담화 완성 시험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은 4개의 프롬프트를 보고 그에 대한 반응을 적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화용적 능력을 보이지 못했고, 원어민에게 적절한 전략을 실행하지 못했다. 한국인 대학생들은 불평 전략 시도에 대한 언어적 능숙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학습전략에 관한 논문은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전략, 실제 사용하는 전략, 보완해야 할 전략 등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듣기·말하기 저해 요소

듣기 저해 요소에 관한 연구가 1편, 말하기 저해요소에 관한 연구가 4편으로 저해요소에 관한 논문은 총 5편으로 전체 논문의 19.4%이고 주제별 분류에서 두 번째로 연구가 많이 된 분야이다. 듣기 저해 요소 연구에서 Won-bo Kim(2002)은 한국인들의 영어 듣기에 방해되는 주요 요인을 음성·음운론적인 문제에서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대학원생들의 영어 뉴스전사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전사 오류의 이유가 영어의 음성·음운론적인 규칙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 연구 듣기 교육에 영어 강세의 중요성과 음성학의 중요 규칙을 교수할 것을 강조하였다.

말하기 저해요소에 관한 연구로 Jiwon Paek(2002)은 한국인 학생들이 원어민과 상호작용을 할 때 그 상호작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 중 저해요소가 있음을 밝혔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상호작용의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장애(obstacles)적 요인으로 한국 학생들이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 회피(avoidance)적 요인으로 학생들이 교실크기가 크거나 수업의 주제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화를 피하는 것이다. 세 번째, 필요요건(requirement)으로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대화 및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네 번째, 자원적(voluntary) 요인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회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채팅을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중 저해 요소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인이다. 이러한 요소는 원어민들과 말할 수 있는 기회, 즉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게 한다.

또한 Jiwon Paek(2007)은 미국 대학에서 한국 대학원생들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있어 인터넷과 같은 기술사용이 그들의 구두 상호작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터넷은 한국학생들간의 유대감을 강화시켜 학업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영어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인터넷은 한국학생들에게 영어로 구두 상호작용을 해야 할 필요성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Eun-Soo Park(2008)은 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실에서의 영어 불안감의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불안감에 대한 세가지 원인은 각 학생의 영어 능숙도에 대한 자아인지도,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말하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영어에 대한 불안감의 원인 중 하나가 말하기 활동에 대한 두려움으로 조사된 것을 볼 때, 말하기 활동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 실제 교실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yun Jin Kim과 Iwaki(2008)는 제 2언어 의사소통시의 불안감, 능력 지각, 의사소통 의지와 같이 제 2언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변인과 실제 제

2언어 능력 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불안감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설문조사와 실제 언어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구두 과제 수행을 실시하였다. 그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과 일본인 두 집단 모두 의사소통 불안감과 능력지각 간에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의사소통 불안감은 한국인 학생들의 제 2언어 능력 자아인식 에는 작용하였지만 일본인 학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다.

듣기·말하기 저해요소에 관한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저해요인으로 정의적인 요인이 상당한 부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효과적인 학습을 차단할 수 있는 저해 요소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어 그에 대한 문제 해결 방안과 앞으로의 교수·학습 방향 설정을 고려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4)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듣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논문이 1편, 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은 3편이다. 그러나 이 중 이주경, 김민홍(2007)의 논문은 듣기와 말하기 모두에 속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총 3편에 해당한다. 이것은 듣기와 말하기의 주제별 분류에서 11.5%를 차지한다.

Il-Suk Lee(2006)는 토익점수와 영어 말하기 능력시험(SEPT)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또한 세부적으로 토익에서 LC점수와 RC점수 중 어느 것이 SEPT 점수와 더 관련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모두 말하기 능력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는 LC보다 RC점수가 말하기 능력과 더 상관관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주경, 김민홍(2007)의 연구는 듣기 능력이 영어 능력을 판단하는 올바른 척도인지를 알아보고, 듣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 억양구사 능력을 통해 말하기 능력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지필고사나 듣기능력 각각의 영역뿐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종합적 능력 역시 억양구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영어 학습자의 지적능력과 수행능력을 모두 측정하여 종합적인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영어교육체계는 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Haeyoung Kim(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8장으로 구성된 코믹 스크립트를 주고 1분간 준비하고 말하도록 하는 말하기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전반적인 이해도와 문법능력간에 상관관계가 있고, 말하기 테스트상에서 나타난 문법능력과 문법오류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혀 말하기 수업에 문법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전반적인 언어수행능력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준다. 언어능력과 듣기·말하기능력과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여 더욱 능숙한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습방안을 심도 있게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5) 발화분석

발화 분석에 대한 논문은 총 5편으로 19.3%이다. 이 논문들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올바른 발화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항목에는 주제 특성상 말하기 관련 논문만 해당되었다. 이주경, 김민홍(2007)의 연구는 4)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항목에도 포함되고 5) 발화분석 항목에도 포함된다. 전운실, 김성혜(2007)는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억양이 듣고 따라 말하기 훈련의 교육방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지를 발화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결과는 억양 교육 후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억양에 개선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나아가 억양 교육과 훈련이 발음 교육에도 긍정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발음 교육의 효과가 짧고, 적용범도 제한적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효과적인 억양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교수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주경(2008)은 의사소통 능력개발을 목표로 한 7차 교육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으로 중·고등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교육받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영어 억양 패턴을 조사함으로써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주경, 이혜원(2008)은 한국인 화자의 영어접속사 구문 발화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발화를 원어민을 대상으로 지각실험을 실시하여 한국인의 발화가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발화인지를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원어민을 통한 지각실험은 발화실험을 검증하고, 한국인 발화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같은 해에 한혜승, 이주경(2008)은 한국인 학습자의 절 발화에서 나타나는 구 설정 오류양상을 조사하여 우리나라 영어 억양교육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발화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언어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의사소통능력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특히 말하기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지난 10년간 발화분석에 관한 말하기 논문이 모두 2007-8년 단기간에 이루어진 점도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6) 교재 분석 및 개발

교재분석 및 개발에 관한 논문은 듣기 논문에서만 2편(7.8%)이 있다. 주제별 분류에서 이 분야의 연구가 가장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재 분석에 관한 논문으로 고등학생의 듣기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한 김정렬(2007)의 연구가 있다. 김정렬은 영어 문항 생성의 자동화에 대한 연구나 기술수준이 아직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단과 형성 평가를 위해 청해 시험의 청취문항의 생성에

개입되는 체계적인 문항 분류 준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 문헌연구,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1차 준거를 개발한 다음, 분석 연구를 통해서 2차 준거를 개발하였다.

Won-Seok Lee(2008)는 7차 교육과정 중학교 영어교과서의 듣기 지문 중 감탄사 ‘oh’와 ‘wow’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자는 이러한 감탄사가 사소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감탄사안에 화자의 다양한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문제는 어떤 감탄사가 자주 사용되었고, 어떤 문장과 표현이 이러한 감탄사들과 결합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감탄사들은 학생들의 실제적인 듣기 기술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였다. 연구 결과 ‘oh’와 ‘wow’는 본래의 실제적인 목적에 맞게 적절한 문맥 안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유창한 의사소통 능력을 위해 감탄사를 균형 있고, 체계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듣기와 말하기 분야에서 교재분석 및 개발에 관한 논문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말하기 관련 교재분석 및 개발에 관한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이는 말하기 교재의 연구 및 개발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고, 이와 함께 교재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듣기와 말하기 논문들의 연구대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성인포함), 그리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은 전체 통합, 이렇게 5개 계층으로 나누었다. 24편의 논문 중, 초등학생, 그리고 제 2언어 학습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논문은 각각 1편으로 4.2%에 불과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은 6편으로 25.0%였다. 대학 및 성인 대상의 논문은 총 16편(66.6%)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연구자가 주로 대학 교수계층임을 감안할 때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들에서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연구 대상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및 성인	전체통합	합계
N(%)	1(4.2)	6(25.0)	16(66.6)	1(4.2)	24(100)

1) 초등학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은 1편(4.2%)이다. 장형지(2005)는 해외 어학연수가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발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5학년 중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5명의 학생과 경험이 없는 5명의 학생들을 비교한 것이다.

2) 중·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듣기 관련 논문은 2편, 말하기 관련 논문은 3편,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모두에 관련된 논문은 1편으로 모두 6편(25.0%)이 있다. 듣기 논문으로 Won-Seok Lee(2008)는 7차 교육과정하의 5개 중학교 영어교과서를 대상으로 듣기 지문에 나오는 감탄사를 분석하였다. 김정렬(2007)은 고등학생 대상의 청해 문항 자동화 분류 준거를 개발하였다.

말하기 관련 논문으로 Daesung Chung(2001)은 사립고등학교 2학년 20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실험 집단 102명, 통제 집단 101명이고 두 그룹은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이주경, 김민홍(2007)은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20명과 여학생 20명으로 총 4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지필고사와 듣기 능력이 영어역양 구사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연구 대상 학생들 각각의 영어지필고사 능력과 듣기능력에 대한 수준을 각각 상, 하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들의 역양패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영어 원어민 4명을 대상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녹취 자료와 같은 자료를 녹음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이주경, 이혜원(2008)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한국 학습자의 영어 가장자리 성조 발화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 역시 지필고사 성적을 중심으로 상위권 학생과 하위권 학생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주경, 김민홍(2007)이 평가를 위한 기준자료로 원어민의 녹취 자료를 활용한 반면, 이 연구는 원어민을 통한 지각실험으로 연구 대상 학생들의 발화실험을 검증하였다. 흥미로운 연구로는 Jeongwan Lim(2004)의 한국인 고등학교 남녀 학생 각 20명, 미국인 고등학교 남녀 학생 각 20명씩, 총 80명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이다.

3) 대학생(대학원 및 성인)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듣기 논문은 5편, 말하기 논문은 11편으로 모두 16편(66.6%)이다. 듣기 논문에서 Won-bo Kim(2002)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영어듣기에 방해되는 요소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7명의 대학원생들에게 약 20분 분량의 영어뉴스를 매주 듣고 전사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이들이 제출한 과제를 점검하면서 주된 실수가 조동사, 전치사, 연결사 등의 기능어 부분에서 빠뜨리거나 잘못 받아 적는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현재 토론토대 대학의 교수인 Chinyon Kim(2004)은 자신을 피실험자로 하여 지난 20년간의 영어 듣기 학습 방법을 성찰하였다.

Insun Kang(2004)은 카이스트 신입생 50명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영어 수업에 대한 요구조사를 하고, 자료조사를 통해 아시아권 국가의 토플 점수, 중국과 한국의 영어학과 커리큘럼 비교, 한국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 교수법 및 시수 등을 알아보았다. Jae-guk Cha(2006)는 부산에 위치한 대학의 학생 145명을 대상으로 영어유창도, 해외방문 경험 유무, 방문 기간, 방문 목적 등에 관한 요구조사와 함께 방문국에서 원어민들과의 의사소통 정도, 그들과 의사소통하면서 사용한 전략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김동규(2008)는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영어 학습과 관련된 요구 조사를 하고 메모하기 전략 사용에 관한 설문조사와 영어 듣기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후 메모하기 전략의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가 행해졌는데 이 실험에 실험집단 36명, 통제집단 40명으로 총 76명이 참여하였다.

말하기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 전윤실, 김성혜(2007)는 한국인 여자 대학생 3명과 남자 대학생 2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영어 발화를 녹음하여 억양패턴을 원어민의 억양패턴과 비교 하였다. 이주경(2008)은 특별히 중·고등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으로 교육받고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억양패턴을 조사하였다.

Il-Suk Lee(2006)는 184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토익점수와 영어 말하기 능력시험(SEPT)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Haeyoung Kim(2009)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말하기 시험을 실시하였고, Eun-Soo Park(2008)은 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영어교실에서의 영어 불안의 원인을 밝혔다. 한혜승, 이주경(2008)은 대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영어 능숙도 점수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 각 5명씩을 선정하여 녹음에 참여시켰다. 상·하 집단 별 구 설정 패턴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원어민의 패턴과 비교연구하였다.

Duk-Young Kim(2008)은 한국인 대학생이 영어로 불평을 말할 때의 화용적 능숙도를 조사한 것으로 이에 대한 결과를 원어민 화자의 것과 비교하였다. Hyun Jin Kim과 Iwaki(2008)는 38명의 한국인 학생들과 39명의 일본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L2 의사소통 불안감, 능력 지각, 의사소통 의지를 알아보는 설문조사, 그리고 실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구두 과제 수행을 실시하여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을 비교하기도 하였다.

Jiwon Paek은 2002년과 2007년 논문에서 미국 대학에서 수학중인 한국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다. 두 연구는 모두 영어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알아본 질적 연구이다. Miyang Cha(2007)는 15명의 한국인 해외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국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의사소통 전략에 관해 조사하였다.

4) 전체통합

전체통합은 이론적 제시를 바탕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연구가 아닌 일반적인 영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논문으로 본 연구에서는 1편(4.2%)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를 한 Won-bo Kim(2003)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 영어강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이 주로 대학생인 것은 연구자가 주로 교수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연구가 적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주고, 이들에 대한 연구활성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3.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먼저 실증적 연구와 이론적 연구로 분류하였고, 실증적 연구는 다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로 분류하였다. 하나의 논문에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모두 사용한 논문은 양적+질적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분류에 따른 양적 연구는 17편으로 전체의 66.7%로 가장 많았다. 질적 연구는 4편으로 16.7%, 양적+질적이 3편으로 12.5%, 그리고 이론제시가 1편으로 4.1%의 분포를 보였다.

표 3
연구 방법

	양적	질적	양적+질적	이론제시	합계
N(%)	16(66.7)	4(16.7)	3(12.5)	1(4.1)	24(100)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연구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양적 접근방식으로 16편(66.7%)이다. 이 중 듣기 논문이 5편이고 말하기 논문이 10편, 듣기와 말하기 모두에 관련된 논문이 1편이다. 듣기 관련 논문에서 양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연구는 학습 전략에서 2편, 교재 분석 및 개발에서 2편, 그리고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듣기 능력에서 1편이 있다. 말하기 논문에서 양적 접근 방식을 이용한 연구는 주제별 분류에서의 발화분석에서 3편, 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에서 2편, 학습 전략 연구에서 2편,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말하기 능력에서 2편, 저해요소에서 1편이다. 총 10편의 논문이 양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그리고 듣기와 말하기 모두에 포함된 논문 1편은 주제별 분류에서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그리고 발화분석에 해당하였다.

말하기 논문 중 양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연구는 발화분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주제에 속한 연구에서도 유사한 빈도로 활용되었다. 이는 양적 접근방식이 객관적인 지표, 또는 점수화하여 그 관계를 알아보는 데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로 Il-Suk Lee(2006)의 논문에서 토익 점수와 영어 말하기 능력시험(SEPT)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질적 접근방식 연구 4편(16.7%) 중 듣기와 관련된 논문이 2편, 말하기와 관련된

논문이 2편 있다. 먼저 듣기 논문에서 Won-bo Kim(2002)과 Chinyon Kim(2004) 두 연구자는 모두 영어 듣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영어 뉴스 받아쓰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말하기 논문 2편은 Jiwon Paek의 2002년도와 2007년도 논문이다. 2002년도 논문에서는 관찰 및 인터뷰를 사용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고, 2007년도 논문에서 역시 관찰과 인터뷰를 통한 질적 접근 방식 연구를 사용하였다.

양적 접근방식과 질적 접근방식을 함께 사용한 논문은 총 3편이다. 이주경(2008)은 한국인의 억양패턴에 대하여 양적 연구인 통계적 분석과 함께 문장 별로 질적 분석을 통하여 한국인의 오류의 원인과 양상을 설명하였다. Miyang Cha(2007)는 의사소통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양적 접근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 접근방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Eun-Soo Park(2008)도 양적 접근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질적 접근방식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두 논문은 주제별 분류에서 각각 다른 부문에 해당하는 연구이지만 연구 방법으로 동일하게 양적·질적 접근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는 양적 접근방식을 통해 객관적인 결과를, 질적 접근방식을 통해 심층적인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연구 도구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연구 방법에 어떠한 연구 도구가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이 항목에서는 연구 접근방식이 이론제시인 것은 제외된다. 또 한 논문에서 여러 가지의 연구 도구를 사용한 것도 있으므로 논문의 수와 연구 도구의 수는 일치하지 않는다.

먼저 듣기 논문의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 도구는 표 4와 같다. 받아쓰기, 관찰, 토익, 교재분석, 듣기 평가, 설문 조사 등이 사용되었다. 이중에서 받아쓰기, 설문 조사, 교재분석이 2회씩 사용되었고, 그 외 나머지 연구 도구는 1회씩 사용되었다. 듣기 학습 전략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도구로는 관찰, 받아쓰기, 듣기 평가, 설문조사가, 교재분석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도구로는 교재분석이, 교수법을 알아보기 위한 도구로는 토익점수가, 그리고 듣기 저해요소를 알아보기 도구로는 받아쓰기가 사용되었다. 양적 연구에서는 토익, 교재분석, 듣기평가, 설문 조사가 주로 사용되었고, 질적 연구에서는 관찰, 받아쓰기가 사용되었다.

표 4
듣기 연구 도구

	관찰	받아쓰기	토익	교재분석	듣기평가	설문	합계
N(%)	1(11.1)	2(22.2)	1(11.1)	2(22.2)	1(11.1)	2(22.2)	9(100)

말하기 관련 논문에서 양적 접근방식과 질적 접근방식에 이용된 연구 도구는

다음 표 5와 같다. 말하기 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도구로는 말하기 평가, 인터뷰, 담화완성, 녹취 등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말하기 능력과 관련하여 영어능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 도구로 토익, 지필고사, 듣기 평가 등이 있었다. 말하기와 관련하여 학습 동기 및 태도 등에 대한 연구 도구로는 대체로 관찰, 설문지, 즉각 반응 적기 등이 사용되었다. 그 빈도를 분석해 본 결과 녹취가 6회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발화를 녹음하고 채취하는 형태인 녹취의 빈도가 높은 것은 말하기 능력의 국소적인 측면에서 영어 발화현상을 알아보고자 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설문지를 활용한 빈도가 5회이고, 인터뷰의 빈도는 4회이다. 말하기 평가에는 일반적인 구두시험과 SEPT가 있었고 그 빈도는 4회이다. 그리고 지필고사가 3회, 토익, 관찰, 담화완성이 각각 2회씩 활용되었다.

표 5

말하기 연구 도구

	말하기 평가	인터뷰	관찰	설문지	담화 완성	녹취	토익	지필고 사	듣기 평가	즉각 반응	합계
N	4	4	2	5	2	7	2	3	1	1	31
(%)	(12.9)	(12.9)	(6.5)	(16.1)	(6.5)	(22.6)	(6.5)	(9.6)	(3.2)	(3.2)	(100)

IV. 결론

본 연구는 *현대영어교육* 학술지의 창간호부터 10년 동안 게재되어 온 10권까지의 논문을 대상으로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 24편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의사소통 중심의 교육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 교육현장에서는 듣기와 말하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에 듣기와 말하기의 더욱 효율적인 교수-학습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년간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들을 분석하여 듣기와 말하기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논문 분석은 연구 주제,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 도구를 중심으로 하였다. 첫 번째,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이 대체로 어떠한 주제를 다루어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조사해 보았다. 세 번째, 논문들의 연구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네 번째, 논문들에 사용된 연구 도구를 조사하였다.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을 주제별로 분류해 본 결과, 6가지 주제항목인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듣기·말하기 능력, 학습 전략, 듣기·말하기 저해요소,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발화분석, 교재분석 및 개발로 세분되었다. 분석결과 학습 전략에 해당하는 주제를 다룬 논문이 가장 많았다. 이는 듣기와 말하기를 통해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적 전략 모색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로 많은 분포를 차지한 주제는 듣기와 말하기 저해요소에 해당하는 논문과 발화분석에 해당하는 논문이었다. 듣기와 말하기를 하는데 저해가 되는 요소를 밝힘으로 더욱 효율적인 의사소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들이다. 또한 말하기 관련 논문만 해당되어 있는 발화분석 주제 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한국어와 영어의 발화상 차이점을 학습자들이 인지하고 극복하는 것이 그들의 말하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리라는 목적으로 보여진다. 다음으로 교수법 및 교수환경에 따른 듣기·말하기 능력, 듣기·말하기 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순이었다. 이 주제들 또한 의사소통능력 향상 중점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모색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연구의 비중을 차지한 교재분석 및 개발 주제 항목에는 듣기관련 논문만 있고 말하기 관련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듣기논문 역시 미비한 편수에 불과하다. 영어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듣기 및 말하기의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면이 효과적인지, 어떤 면이 수정·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많은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Allwright (1981)은 학습 환경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만큼이나 교재 역할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Hutchinson과 Torres(1994)는 학습자들은 교실 안과 밖에서 즉, 수업 시간에 토론할 때, 학습활동을 할 때, 스스로 공부할 때, 숙제 할 때, 시험 준비를 할 때, 교재를 자신의 학습을 구성하도록 도와주는 틀, 혹은 길잡이로 인식한다고 하였다. 교재는 더 잘, 더 빠르게, 더 쉽게, 더 많이 배울 수 있게끔 해 준다면 Hutchinson과 Torres는 교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듣기와 말하기 교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의 연구 대상을 분석한 결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영어교육 학술지에 실린 듣기 논문을 분석한 차경환 등(2005)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다. 그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영어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듣기 논문에서 수준별, 연구 대상 별 분류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56.4%로 총 듣기 논문의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 중 듣기와 말하기 관련 연구가 대학생 대상으로만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여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은 공식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교육적 동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 대학 및 성인 뿐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활성화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의 연구 방법에서 연구 접근방식의 분석 결과, 양적 접근방식을 이용한 연구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에 반해, 질적 접근방식은 미비하였다. 연구 접근방식은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선정된다. 그러나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이용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연구 접근 시 질적 방법 이용도 적극 고려되어야 하겠다. 연구 도구는 연구자가 연구 주제와 접근방식에 따라 적절한 도구를 사용한다. 듣기 관련 논문의 연구 도구로는 받아쓰기, 토익, 설문지, 전문가 의견, 교재분석, 녹취, 듣기평가가 사용되었다. 말하기 관련 논문의 연구 도구로는 말하기 평가, 인터뷰, 관찰, 설문지, 담화완성 시험, 녹취, 토익, 지필고사, 듣기평가, 즉각 반응 적기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내용에 따라 적절하고 다양한 연구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세밀한 결과와 분석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현대영어교육*에 게재된 논문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기간이 2000년 이후부터 10년 동안 이루어진 연구들이기에 우리나라의 영어 듣기와 말하기에 관한 역사적이고 전체적인 연구 동향으로 단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한 학술지에 최근 10년간 게재된 의사소통 중심의 듣기와 말하기 관련 논문만을 추출하여,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분류 및 검토는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를 위해 최근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동규. (2008). 메모하기 전략이 EFL 대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현대영어교육*, 9(2), 110-126.
- 김정렬. (2007). 선제 시스템 자동화를 위한 청해 문항 분류 준거 개발. *현대영어교육*, 8(2), 136-161.
- 이주경, 김민홍. (2007). 영어듣기 및 지필고사의 수준별 능력과 억양구사 능력과의 관계. *현대영어교육*, 8(2), 196-215.
- 이주경, 이혜원. (2008).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가장자리 성조 발화와 영어 원어민의 지각실험. *현대영어교육*, 9(3), 215-231.
- 이주경. (2008). 7차 교육과정을 수료한 대학생들의 영어 억양패턴에 나타난 의사소통 능력 평가. *현대영어교육*, 9(1), 256-282.
- 장형지. (2005). 영어권 국가에서의 어학연수가 한국 초등학생의 영어 발화에 미치는 영향: Pitch accent와 Deaccentuation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6(1), 179-197.
- 전윤실, 김성혜. (2007).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억양학습에 대한 연구: 영어 초점의문문을 중심으로. *현대영어교육*, 8(3), 366-385.
- 차경환, 이원석, 심재황. (2005). *영어교육* 학술지에 실린 듣기 논문의 역사적 검토. *영어교육*, 60(2), 29-58.
- 한혜승, 이주경. (2008). 영어의 절 발화에 나타난 한국인 화자의 경계실현 양상. *현대영어교육*, 9(3), 257-277.

- Allwright, R. L. (1981). What do we want teaching materials for? *ELT Journal*, 36, 5-18.
- Beglar, D., & Murray, N. (1993). *Contemporary topics: Advanced listening comprehension*. White Plains, NY: Longman.
- Berne, E. J. (2004).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Foreign Language Annals*, 37(4), 521-533.
- Brown, H. D. (2001). *Teaching by principles: An interactive approach to language pedagogy* (2nd ed.). White Plains, NY: Longman.
- Cha, Jae-guk. (2006). A study of listening strategies favored by Korean university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7(2), 39-56.
- Cha, Miyang. (2007). The use of communication strategies in international business settings. *Modern English Education*, 8(2), 19-39.
- Chen, T. (2003). Reticence in class and on-line: Two ESL students' experiences with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System*, 31(2), 259-281.
- Chung, Daesung. (200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ral communication ability. *Modern English Education*, 2(2), 22-44.
- Denzin, N. K., & Lincoln, Y. S. (Ed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CA: Thousand Oaks.
- Duryee, P., Lanier, L. K., & Michel-Reyer, R. (1991). Conversation partners-useful language input? An informal summary of research.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38039)
- Field, J. (2008). *Listening in the language classroo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lowerdew, J., & Miller, L. (2005). *Second language listen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oster, P., & Skehan, P. (1996). The influence of planning and task type on second language performanc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8(3), 299-324.
- Gass, S. M., & Varonis, E. M. (1991). Miscommunication in nonnative discourse. In N. Coupland, H. Giles, & J. M. Wiemann (Eds.), *Miscommunication and problematic talk* (pp. 121-145). Newbury Park, CA: Sage.
- Holt, R. (1999). *On Targe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tchinson, T., & Torres, E. (1994). The textbook as agent of change, *ELT Journal*, 48, 315-328.
- Jackson, J. (2002). Reticence in second language case discussions: Anxiety and aspirations. *System*, 30(1), 65-84.
- Jones, L., & Kimbrough, V. (1997). *Great ide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hnson, D. M. (1992). Approaches to research in second language linguistics: A progress report. *TESOL Quarterly*, 29, 455-472.
- Kang, Insun. (2004). Teaching English listening in college. *Modern English Education*,

- 5(1), 3-28.
- Kim, Duk-Young. (2008). A study of complaint strategies for EFL college learners. *Modern English Education*, 9(2), 58-70.
- Kim, Haeyoung. (2009). The role of grammar in speaking proficiency: Exploring the need for spoken grammar. *Modern English Education*, 10(1), 46-65.
- Kim, Hyun Jin, & Iwaki, Nami. (2008). The role of L2 communication anxiety in tendencies in self-perceptions of L2 competence in the Korean and Japanese contexts. *Modern English Education*, 9(3), 63-82.
- Kim, Won-bo. (2002). Efficient listening teaching strategies through the analysis of English listening errors. *Modern English Education*, 3(2), 3-16.
- Kim, Won-bo. (2003). Stress and English learning. *Modern English Education*, 4(1), 23-35.
- Kim, Chinhoon. (2004). Rational for interating inter-personal interaction into the EFL/ESL listening curriculum. *Modern English Education*, 5(2), 28-38.
- Lee, Il-Suk. (2006). The effectiveness of TOEIC scores on English oral proficiency. *Modern English Education*, 7(1), 33-52.
- Lee, Won-Seok. (2008). The interjections *Oh* and *Wow* in listening scripts of middle school English textbooks. *Modern English Education*, 9(1), 90-107.
- Lim, Jeongwan. (2004). Gender and politeness: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5(2), 54-67.
- Liu, N., & Littlewood, W. (1997). Why do many students appear reluctant to participate in classroom learning discourse? *System*, 25(3), 371-384.
- Morley, J. (1995). Academic listening comprehension instruction: Models, principles, and practice. In D. Mendelson & J. Rubin (Eds.). *A guide for the teaching of second language listening* (pp. 83-162). San Diego: Dominie.
- Murphy, J. M. (1987). The listening strategie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college students. *Research and Teaching in Development Education*, 4(1), 27-46.
- Nation, I. S. P., & Newton, J. (2008). *Teaching ESL/EFL listening and speaking*. New York: Routledge.
- O'Mally, J. M., Charmot, A.U., & Kupper, L. (1989).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10(4), 418-437.
- Paek, Jiwon. (2002). What else? Korean students interaction with English-speaking people. *Modern English Education*, 3(2), 37-67.
- Paek, Jiwon. (2007). Korean graduate students' technology use and language interaction in an American university. *Modern English Education*, 8(3), 171-196.
- Park, Eun-Soo. (2008). A case study of five Korean university students' English language anxiety in English classroom. *Modern English Education*, 9(1), 108-127.
- Peterson, P. (2001). Skills and strategies for proficient listening. In M. Celci-Murcia (Ed.),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3rd ed.) (pp. 87-100). Boston:

Heinle & Heinle.

- Poon, A. (1992). Action research: A study on using TV news to improve listening proficiency.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75 607).
- Radley, P., & Sharley, A. (1999). *Trio 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 J. C. (1983). Listening comprehension: Approach, design, procedure. *TESOL Quarterly*, 17(2), 219-240.
- Saricoban, A. (1999). The teaching of listening. *The Internet TESL Journal*, 5(12). Retrieved April 30, 2010, from the World Wide Map: <http://iteslj.org/Articles/Saricoban-Listening.html>.
- Skehan, P., & Foster, P. (1999). The influence of task structure and processing conditions on narrative retellings. *Language Learning*, 49(1), 93-120.
- Stoller, F. L., Hodges, R., & Kimbrough, J. (1995). Examining the value of conversation partner programs. *Applied Language Learning*, 6, 1-12.
- Vandergrift, L. (1999). Facilitating second language listening comprehension: Acquiring successful strategies. *ELT Journal*, 53(3), 168-176.
- Vann, S. (1996). Using CNN newsroom in advanced listening classes.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94 294).
- Young, M, Y, C. (1997). A serial ordering of listening comprehension strategies used by advanced ESL learners in Hong Kong. *Asi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7, 35-53.

이명관

안양대학교 교양학부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708-113

Tel: (031) 467-0828/ H.P.: 010-2479-6768

Email: mkleee@anyang.ac.kr

박옥희

배재대학교 교양교육센터 영어교육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연자 1길 14

Tel: (042) 520-5929/ H.P.: 010-8986-0729

Email: okpark@pcu.ac.kr

Received 6 June 2010

Revised 2 August 2010

Accepted 11 August 2010